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1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에 50,000대의 전기차 충전 포트를 신규로 배치하는  
프로그램 전개를 발표

*PSC, 공공 혜택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배치하는 공공 서비스 업체 및 충전  
포트 제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V Make-Ready' 프로그램 개시에 투표*

*1,500대의 DC 고속 충전 포트를 포함하여 5만 대의 공용 및 상용 충전 포트를  
2025년까지 신속 배치하여 뉴욕주의 비거주자 충전 포트를 10배 확대할 계획*

*15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26억 달러 규모 이상의 소비자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해 2억 6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공공 서비스 업체들이 "EV Make-Ready"라고 하는  
뉴욕주의 첨단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2025년까지 주 전역에 5만대의  
공용 및 상용 레벨 2 충전 포트를 배치하여 4년 이내에 비거주자 충전 포트를 10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센트럴 허드슨 가스 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oration),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컴퍼니 오브 뉴욕(Consolidated Edison  
Company of New York, Inc.), 뉴욕주 전기가스공사(New York State Electric & Gas  
Corporation),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 오렌지 앤 록랜드 유틸리티스  
주식회사(Orange and Rockland Utilities, Inc.), Rochester Gas and Electric  
Corporation 등과 같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모든 주요 공공 서비스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 규칙을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가 승인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기후 변화에 맞서고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늘 결정으로 더  
친환경적이고, 온실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미래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EV  
Make-Ready 프로그램은 교통 부문을 전력화하고, 2035년까지 온실 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신규 승용차와 트럭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경쟁력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V Make-Ready 프로그램은 공공 고속 충전 포트가 단기적으로 짧은 이동거리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존 벽면 콘센트보다 최소 두 배 빠르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공용 및 상용 레벨 2 충전 포트 50,000대를 비롯해 뉴욕에 공공 직접 고속 충전 포트 1,500대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는 뉴욕주에 공공 충전소가 4,57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뉴욕주의 공공 충전소는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 Make-Ready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에서 자금을 지원 받으며 소비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유틸리티 및 충전소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용 공유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총 예산을 최대 7억 100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이 중에서 2억 600만 달러 이상을 2025년까지 저소득층과 취약한 지역사회의 평등한 이용 및 혜택을 위해 할당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한 EV 충전 포트는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비용의 100%까지 지원합니다. EV Make-Ready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시로 발효된 상태이었지만, 오늘 결정으로 그러한 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포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향후 몇 년 동안 뉴욕의 전기차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투자자 소유의 공공 서비스 업체가 담당하는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 자금을 동원하는데 주력했지만 이 위원회는 뉴욕주의 교통 전력화를 진행하고 청정 교통편 이용을 확대하며,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목표는 모든 주에서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Michael Cusick 하원의원 겸 하원 에너지 위원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가 온실 가스 방출의 거의 1/3을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 전력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전력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EV Make-Ready 프로그램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 부문을 전력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Rory M. Christia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해서는 교통 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해야 합니다. 뉴욕의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원 교통 위원회(Transportation Committee)의 회장인 William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V Make-Ready 프로그램은 교통 부문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온실 가스가 없는 미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공용 충전 포트 인프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한 공청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걱정들을 해결해야지만 전기차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점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교통 부문은 미국의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이며, 이러한 배출량은 지난 30년 동안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되도록 촉진할 경우, 뉴욕 주민은 26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누리고 뉴욕주의 교통 전기화 및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송 부문 전기화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더욱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가 주 전체의 전기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합니다. 충전 인프라의 신중한 배치를 통해 설치 비용 절감, 사이트 호스트 수용 개선, 운전자 사용 극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력청(Long Island Power Authority, LIPA)은 서비스 제공업체인 PSEG 롱아일랜드(PSEG Long Island)와 함께 2025년까지 롱아일랜드에 신규 전기차 180,000대, 신규 EV 충전 포트 4,745개 설치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향후 4년 동안 준비 인프라에 8,900만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투자자 소유 공공 서비스 지역에 속하지 않는 롱아일랜드와 뉴욕주의 다른 지역 주민들은 "뉴욕 청정 운송 공모전(New York Clean Transportation Prizes)"을 위해 NYSERDA가 마련한 혁신적인 [공모전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뉴욕주의 교통 전력화 목표를 추진하고, 청정 교통편 이용을 확대하며,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온실 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특정 전력 공급업체나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규제와 관계 없이 뉴욕주 전역에서 함께 추진해야 하며,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주 전체가 협력하고 CLCPA의 혜택을 모든 주민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CLCPA에는 모든 주 기관들이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화해야 하고,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의 전체 지출 중에서 35% 이상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V Make-Ready 비용에는 공공 서비스 회사가 소유하는 준비 작업, 고객 소유의 준비 작업, 준비 구현 및 기타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됩니다.

###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뉴욕은 기후 리더십과 지역사회 보호 법을 통해 법률로 각인하여,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 탄소 중립에 이르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 91개에 대한 21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2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19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5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을 지침으로 하여,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